

뉴욕증시 - 고용지표 호조 불구하고 유가 급락에 혼조 ...나스닥만 0.36% ↑

1. 국제유가, 美 원유재고 감소 '기대이하' 급락 ...WTI 4.8% ↓
2. 美 고용지표 호조
 - *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70K → 254K (예상:270K) ...예상 하회 & 기준점 30만건 70주 연속 하회
 - * 6월 ADP비농업고용변동 168K → 172K (예상:159K) ...예상 상회
3. 유럽증시, 유가 급락 불구하고 美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에 ↑
4. ECB "브렉시트, 유럽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
5. IMF 총재 "불확실성 감소 위해 브렉시트 계획 빨리 내나라"
6. 유로그룹 의장, 이탈리아 은행 구제 공적자금 투입 반대

국제 증시			국제 상품		
DOW30	17895.88	(-0.13%)	WTI	45.14	(-4.8%)
NASDAQ	4876.81	(+0.36%)	COMEX금	1362.10	(-0.4%)
S&P500	2097.90	(-0.09%)	COMEX구리	2.1225	(-1.35%)
KOSPI	1974.08	(+1.07%)	주요국가 10y국채		
KOSDAQ	695.95	(+1.52%)	한국	1.380%	(-0.3bp)
국제 통화			미국	1.38%	(+1.7bp)
유로/달러	1.1060	(-0.0039)	영국	0.78%	(+1.5bp)
유로/엔	111.44	(-0.97)	독일	-0.17%	(+0.6bp)
달러/엔	100.74	(-0.55)	프랑스	0.13%	(+0.2bp)
달러/위안	6.6820	(-0.0037)	이탈리아	1.24%	(+0.2bp)
원/달러	1154.60	전일 1165.60	스페인	1.18%	(+0.7bp)
NDF	1159.00 / 1159.20원	3.95원 상승	그리스	7.75%	(-1.4bp)

금일 예정 지표			
국가	경제지표	Previous	Forecast
미국	-6월 비농업고용	38K	175K
	-6월 실업률	4.7%	4.8%
	-6월 시간당평균임금 (MoM)	0.2%	0.2%
영국	-5월 무역수지	-10.53B	-10.65B
독일	-5월 무역수지	24.0B	23.8B

<2016년 7월 8일 시황>

1. 주요 뉴스

1-1. 美 6월 FOMC의 금리동결 이유..."브렉시트 + 고용둔화 - 뉴스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1320884&oid=421&aid=0002153200&ptype=052>

-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위원들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은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파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정책위원들은 고용의 급격한 둔화가 '통계적 잡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신규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을 두고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폭넓게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1-2. "예상보다 더 비둘기"...美 금리인상 한차례 그치나 - 이데일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96387&iid=1257506&oid=018&aid=0003566010&ptype=052>

- 전문가들 "올해 美 금리인상은 많아야 한번"
- 비둘기파 면모 FOMC 영향...채권시장 강세

1-3. 한은,브렉시트에 '초비상'...파운드급락에 '보유액' 감소 -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64>

-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천698억9천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10억1천만달러 감소, 파운드화가 8%, 유로화가 0.2% 절하 때문
- 같은 기간 엔화가 7.9%, 호주달러는 3.6% 절상됐지만 유로권 통화 약세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함
- 브렉시트 여파에도 외자운용원의 런던데스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큼

2. 전일 장중 동향

*KTB: 시가 111.14 / 종가 111.15

*LKT: 시가 133.65 / 종가 133.77

2-1. 국내 채권 동향

미 FOMC 의사록이 발표됨에 따라 국고채 10년 금리는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 적인 FOMC 의사록에 금리인상 시기가 미루어지는 예상이 우세해지며 원/달러 급락 및 코스피 강세에 영향을 받음. 또한, 지난번에 '쇼크' 수준을 보여줬던 미 고용지표가 한국시간 7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당분간의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2-2. 원화 IRS/CRS

IRS 시장은 국채 선물 약세와 함께 금리가 상승 출발. 장중 호가 조성은 활발하였으나, 금리의 변동폭은 제한적. 오전에는 전일에 이어 이후 국채 선물은 장 후반 하락폭을 반납하였으나, 여전히 2 년과 3 년 구간 비드가 강세를 보이며 동 테너들은 0.5-0.75bp 상승한 채 전체적으로 약보합 마감.

CRS 시장은 1 년물만 -0.5bp 하락, 3 년물 이상은 0.5-1.0bp 상승하며 커브가 스틱. 한산한 시장 분위기에 시장은 미 고용지표를 대기하는 장세. 재료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에 환율 급락또한 큰 영향은 없는 모습을 보임.

국내 주요 금리			BOND SWAP SPREAD		
3y	1.208%	(+0.5bp)	3y	-4.5bp	(+0.3bp)
5y	1.244%	(-0.1bp)	5y	-8.7bp	(+0.1bp)
10y	1.380%	(-0.3bp)	10y	-16.3bp	(+0.3bp)
CD	1.360%	(-1.0bp)			

IRS OUTRIGHT			IRS SPREAD		
1Y	1.2225%	(+0.25bp)	1*2Y	-5.00	(+0.25bp)
2Y	1.1725%	(+0.50bp)	2*3Y	-1.00	(+0.25bp)
3Y	1.1625%	(+0.75bp)	2*5Y	-1.50	(-0.50bp)
5Y	1.1575%	(0bp)	3*5Y	-0.50	(-0.75bp)
7Y	1.1675%	(0bp)	5*7Y	1.00	(0bp)
10Y	1.2175%	(0bp)	5*10Y	6.00	(0bp)